

'새만금 신공항 예타면제' 무안공항 반쪽짜리 되나

"서남권 2개 공항 중복투자" 논란 제기

새만금 신공항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에 포함됨에 따라 서남권 지역에 2개 국제공항으로 인한 중복투자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광주 민간공항과 통합을 앞둔 무안국제공항이 '반쪽짜리 공항'으로 전락하지 않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29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예타 면제 타당성 조사(예타) 대상사업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논란속에 '제6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6~2020)'에 포함된 새만금 '신공항' 건설이 가시화되고 있다.

전북도는 오는 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를 유치하면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시급성을 제기하면서 정부를 압박해왔다.

이번 정부의 결정으로 불똥이 무

안국제공항으로 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동차로 한 시간 정도 거리인 두 공항은 고객이 겹치고 비행기 노선도 겹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무안국제공항은 공주 등 충남 일부지역과 호남권 이용객을 주 고객으로 하고 있는데 호남고속철도(KTX) 무안공항 경유 노선이 확정되면서 익산~무안공항 간 소요시간은 40여분에 불과해진다.

중복투자로 인해 두 공항이 모두 타격을 볼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런 우려를 미리 예단해 광주전남연구원은 보고서를 내놓았다.

광주전남연구원은 지난해 '광전 리더스 INFO(인포)' 연구보고서에서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커가고 있는 무안국제공항에, 새만금 신공항 추진은 공항 이용권 중복 등 우리나라 공항정책에 역행하며 공

시설의 중복투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지역도 무안국제공항의 영향권으로 잠재적인 항공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으로 판단된다"면서 "서남권 내의 공항이용권 중복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무안국제공항에 다양한 국제노선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가 잘 진행되고 있어 선점 효과로 인해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내심 걱정하는 모습도 역력하다.

일각에서 이번 결정으로 호남지역 민간 지역감등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

지역정기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선심성 공항정책이 자칫 두 공항을 모두 죽이는 꼴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면서 "지역민간 균열조정도 비춰진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시중은행으로 갈 설 자금... 설날을 일주일 앞둔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은행 강남본부에서 직원들이 시중은행에 공급할 설 자금을 방출하고 있다.

광주은행 '하면돼지적금' 출시

2년제 최고 연 4.5% 금리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은 2019년 기해년 황금돼지해를 맞아 목돈 마련 상품인 '하면돼지적금'을 오는 30일부터 영업점과 모바일웹

킹을 통해 판매한다고 29일 밝혔다.

'하면돼지적금'은 1년제(12개월) 또는 2년제(24개월)로 1인 1계좌에 한해 실명의 개인이 가입할 수 있다. 월 적립한도는 최대 20만원이다.

가입 시 가입자 본인에 한해 돼지띠해 출생자에게 0.5%포인트, 광주은행 신규고객에게 0.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2년제의 경우 최고 연 4.5%까지 금리가 적용되며, 출시와 함께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할 계획이다.

서은홍 기자

작년 국내 인구가동 회복세...구직 2030대·경기 유입 덕

통계청, '2018년 국내인구가동 통계 발표'·작년 국내 인구가동 729.7만명

지난해 국내에서 거처를 옮긴 인구가 3년 만에 증가했다. 국내 인구가동은 고령화 등 영향으로 장기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지만, 1년 전 부동산 정책의 영향으로 4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던 것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작년 국내 인구가동 730만명... '직업 사유' 6만2000명 늘어나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18년 국내 인구가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인구 이동자 수는 총 729만7000명으로 1년 전(715만4000명)보다 14만3000명(2.0%) 늘었다. 지난 2016~2017년 2년 연속 감소하며 1976년(677만3000명) 이후 최저치를 찍은 이후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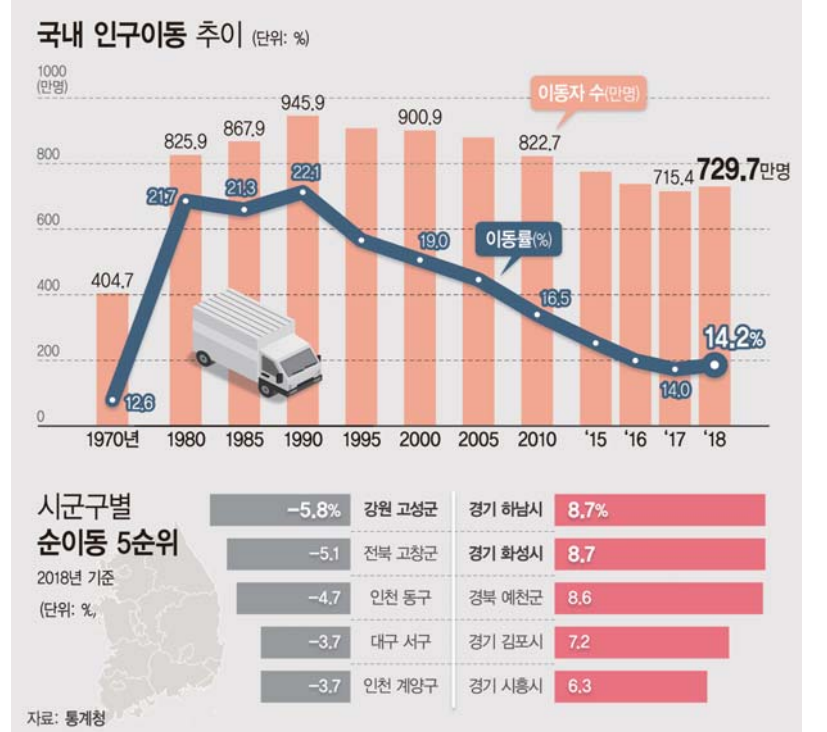
지난 2008년 88만8256명을 기록하며 90만명대를 내준 이동자 수는 최근 10년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왔다. 통계 당국은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함께 경제 성장률이 둔화하면서 국내 인구 이동이 장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주민등록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뜻하는 인구가동률은 14.2%로 1년 전(14.0%)보다 0.3%p 올랐다. 1년 전 1972년 이후 4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소폭 회복한 것이다.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2017년에 이동자 수와 인구 이동률이 각각 유례없는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기저효과가 작용했다"며 "연령대별로는 직업 사유로 20~30대의 인구 이동이 늘고 시·도별로는 경기 쪽으로의 인구 유입이 늘어나 전체적으로 회복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인구 이동 사유로는 주택(292만1000명·40.0%)이 가장 많이 꼽혔다. 다만 주택을 사유로 거주지를 옮긴 인구는 1년 전보다 3만5000명 줄었다. 반면 가족(170만2000명·23.3%)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꼽힌 직업(153만2000명·21.0%)을 사유로 이동한 이동자 수는 6만2000명이나 늘어났다. 주거 환경을 사유로 꼽은 이들도 3만8000명 늘어난 24만8000명을 기록했다.

시·도 내 이동이 486만8000명으로 전체의 66.3%를 차지한다. 시·도 간 이동은 전체의 33.3%인 242만9000명이다. 각각 1년 전과 비교하면 2.6%(12만5000명),



0.8%(1만8000명) 증가했다.

전 연령대에서 이동률이 1년 전보다 늘었다. 20대 이동률이 22.4%로 1년 전보다 1.0%p 가장 크게 상승했다. 30대 이동률은 1년 전보다 0.5%p 오른 21.5%였다. 이동률이 가장 낮은 연령대는 70대(7.1%)였다. 이동자의 중위 연령은 34.2세였다.

20대는 전북(-4.3%), 강원(-3.9%), 전남(-3.9%), 울산(-3.3%), 경북(-3.2%) 등 지역에서 유출률이 높았다. 30대는 서울(-2.8%), 대전(-1.8%), 부산(-1.5%), 전북(-1.2%) 등에서 상당수 빠져나갔다. 경기, 세종, 제주 등 전 연령층에서 인구가 유입된 지역도 있었다.

◇전입·전출률 '1위' 세종... 서울에선 28년 연속 순유출 이어져

시·도별로 보면 전입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29.2%)이었다. 그 뒤를 제주(15.9%), 경기(15.9%) 등이 이었다. 전출률이 가장 높은 지역도 세종(18.6%)이었다. 서울(16.1%), 광주(15.5%) 등도 높게 나타났다.

경기(17.1%), 세종(3만1000명), 충남(1만명) 등 5개 시·도에서 전입자가 전출자보다 많아 '순유입'이 발생했다. 반대로 전출자가 전입자보다 많았던 곳은 서울(-11만명), 부산(-2만7000명), 대전(-1만5000명) 등 12개 시·도였다.

지역 인구 대비 순이동자 수 비율을 나타내는 '순유입률'은 세종(10.6%)과 제주(1.3%), 경기(1.3%)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순유출률'은 서울(-1.1%), 울산(-1.1%), 대전(-1.0%) 순으로 높았다.

지난해 한 해에만 서울에서 11만2000명이 순유출됐다. 서울 인구는 지난 1990년부터 28년 연속 순유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9만8100명이 전출 사유로 주택을 꼽았다.

서울 전출자의 64.0%가 경기로 이동했다. 경기로의 전입자 중 가장 큰 비중인 54.6%가 서울에서 온 것으로 조사됐다. 반대로 서울로의 전입자 중 절반 이상인 50.7%가 경기에서 왔다. 경기는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강원·충북·충남·전북·제주 등 7개 시·도에서 전입·전출자 수 1위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내 이동자 수는 1년 전보다 12만000명(3.6%) 증가한 344만5000명을 기록했다. 전체 이동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7.2%로 1년 전보다 0.8%p 올랐다. 서울에서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내 지역으로 순유출된 인구가 14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8000명 늘었다.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전입은 47만명으로 1년 전보다 2만3000명(5.2%) 늘었지만,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전출은 41만명으로 1년 전보다 2만000명(4.8%) 줄었다. 충남·제주·세종(5000명) 등 4개 시·도로는 수도권으로부터의 인구가 유입됐으나 부산·경남(1만2000명), 경북(1만1000명), 대구(1만명), 광주(7000명) 등 10개 시·도에선 수도권으로 인구가 유출됐다.

임산부 배려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